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6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12일 (음력 8월 23일) 목요일

전남경찰 '5·18민주화운동 경찰 역할' 최초 정리

현장 경찰관 등 137명 증언·치안본부 기록 등 보고서에 담아

전남경찰청장 “역사왜곡 바로 잡고 진실규명에 도움됐으면”

전남경찰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과정 속 경찰의 역할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국가기관인 경찰이 5·18 보고서를 정리·작성해 외부에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전남경찰청은 '경찰관 증언과 자료를 중심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속 전남 경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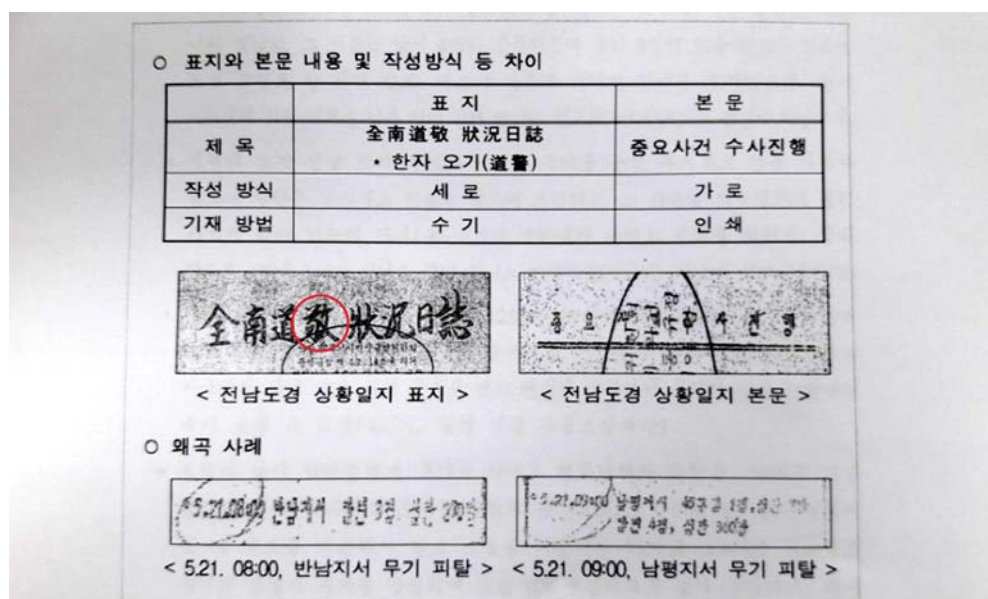
앞서 전남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경찰 사료 수집 및 활동조사 전담(TF)반을 구성,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자료 수집과 진술 등을 확보했다.

전남경찰은 5·18 경찰 책임론을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을 계기로 그 동안 5·18 당시 경찰 활동에 대한 자체 진상규명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 이번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37년 전 전남경찰청(전남경찰)은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던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사 뒤편에 자리했다. 현재는 전남 무안 남쪽에 터를 잡고 있다.

전담반은 5·18 당시 근무경찰관과 관련자 137명을 면담조사 했다 또 국가기록원과 5·18 기록관 등을 통해 주요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치안본부에서 작성한 '전남 사태 관계기록'은 5·18 직후 작성돼 30년 비공개가 설정된 경찰 감찰서류로 이번 조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다.

주요 조사 대상은 5·18 이전 시위 상황과 경찰 대응, 계엄군 투입 이후 경찰의 역할, 계엄군의 강경 진압과 시위대의 무기탈취 과정, 시민군 점령기간 경찰활동과 광주 시내 치안 상황 계엄군 재진입 이후 경찰 활동과 신군부의 조치사항 등이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지역 치안을 맡았던 전남경찰이 11일 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권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근거를 만들기 위해 왜곡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 '全南道警(전남도경)'의 '경'을 '공경할 경(敬)'으로 적은 상황일지 표지.

보고서에 따르면 5·18 직전 광주는 안정적 치안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후 계엄령 전국 확대와 함께 5월18일 새벽 광주에도 계엄군이 배치됐다. 경찰 요청이 아닌 군 자체 판단에 따라 5월18일 오후 4시부터 계엄군의 광주 시내 진압 작전이 시작됐다.

시민군 아래 광주시내 치안상황은 전반적으로 큰 혼란 없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군이나 정보기관은 약탈과 살인·강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기술했다.

5·18 직후 경찰이 작성한 '광주시태 진

상보고'라는 기록에는 5월21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 계엄군은 이미 (옛 전남)도청에서 철수했으며 경찰만이 시위대와 대치한 것으로 왜곡 기술하는 등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특히 전두환 회고록은 5월21일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이 지휘권을 포기하고 행방불명된 것처럼 기재하고 있지만 확인 결과 안 국장은 단 한 순간도 지휘권을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지휘 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21일 오후 3시부터 2000명이 넘는 경찰관이 도청에서 최종 철수하는 과정에

시민의 도움으로 단 한 명의 피해 없이 소속 경찰서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 이는 광주 시민의 높은 시민 정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전남반은 설명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전남반은 '광주에는 약 130여 명의 정보·보안 형사들이 활동함과 동시에 시내 주요 지점 23곳에 정보센터가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 같은 눈을 피해 광주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수백 명의 북한군이 활동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식밖의 주장이다'는 견해도 밝혔다.

반성과 사과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전남반은 시민보호의 무한 책임이 있는 경찰이 5·18 당시 군의 과격진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 포고령 위반자 검거와 같은 신군부 수습활동 참여과정에서의 과잉 행위 등 경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서도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성북 전남경찰청장은 "지난 4월초 전두환 회고록 발행과 함께 '광주시태 초기 경찰력이 무력화되고 계엄군이 시위진압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전남경찰국장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었다'는 경찰 책임론이 일었지만 자료와 기록이 없는 경찰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 생존 경찰관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후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자료를 수집, 역사왜곡을 바로 잡고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 보고서 한 권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TF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주요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작성한 5·18 보고서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5·18의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찾아내고 관련 증언을 확보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규 기자



Photo漫評

헛소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9일 사정 당국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수행비서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조사를 했다고 밝혀 사실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홍 대표 측과 해당 통신조사를 했던 기관들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에 무리란 자적이 많다.

홍대표 전화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다른 수사를 하다가 혐의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를 확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아동이었을 때 이런 경우를 사찰 의혹이라고 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어이가없게도' 이용하며 하기보다는 통신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홍 대표 측이 전남 통신사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 대표 수행비서 손모씨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총 6차례 있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스스



하영토끼 쓰는데는 일 거냐...

추미애



자기들도 야 당일 때 같은 수법을 써놓고 산...

홍준표



비싼 밥 먹고...그러니까 혐오대상 1위 시민들

시민들

장흥 회진면 '회령포 문화축제' 내일 개막

회령진성 및 물양장 주변서 3일간 열려... "역사적 상징성 부각"

2017 회령포 문화축제가 13일 개막된다.

장흥군 회진면(면장 손승현)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회령진성 및 물양장 주변에서 3일간 열린다. 역사적 장소와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리의 기포지라는 의미를 담아 '회령포에서 시작된 열두척

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5일 문화축제 시작을 알리는 난장뜨기로 열기를 고조시켜 왔다.

특히 축제 시작일인 13일 오후 2시부터 회진면에서 진행되는 씻김굿과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 12척 해상퍼레이드,



수군복 입고 판옥선 타기 체험 등 여러 가지 행사가 펼쳐진다.

손승현 면장은 "우리 회진은 조선수군 재건의 육로 종점이자 수로 시점으로 이순신장군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라며 "장흥군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문화축제인 만큼 역사적 상징성 부각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